

전시 연장 · 특별이벤트 동시에

전북대 박물관, 델로스 작가 초대전 내달 31일까지 연장... 라이브 페인팅 · 쓱쓱-초상화 등 진행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홍찬석)은 델로스(Delos) 작가 초대전인 '구름곰 나라의 엘리스'의 전시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달간 이어진 이 전시는 인기 일러스트 작가 델로스가 파란 하늘에 떠 있는 몽계구름을 보다가 만든 '구름곰'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캐릭터들이 특별한 아트웍으로 선보였다.

전북대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관람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 기간을 연장했다.

전시 연장과 함께 전북대박물관은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7월 10일과 8월 14일 전시장에서 이뤄지는 델로스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이 이어지고, 7월 24일과 8월 28일에는 델로스 작가의 '쓱쓱-초상화'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쓱쓱-초상화'는 선착순 예약 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델로스 작가의 작품설명.

(사진=전북대학교 박물관 제공)

홍찬석 관장은 "좋은 작품을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전시기간을 연장했다"며 "연장 기간 동안 이어지

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더 깊이 알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시민을 위한 '치유와 힐링'

군산시립예술단 '작은음악회' 13일 · 20일 개최

섬세하고 깊은 감성을 품은 군산시립예술단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치유와 힐링이 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무대를 펼친다.

'작은음악회'는 공연장 문턱을 낮춰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이다.

시립예술단은 좀 더 시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8시 소공원(주민센터뒤쪽)(삼학동), 20일 오후

8시 중앙교회 계단(개정동)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치유와 힐링 작은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시립예술단과 함께 마음적으로 힘든 시민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어려울 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국립등산학교,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청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맞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2020년 6월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설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

라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건강운동관리사 제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10일간 교육(총 76시간)을 이수하면 발급된다.

교육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중 자격종목(승마, 근대5종, 사이클 자전거, 트리아슬론 등)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교육신청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school.kr)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유호상 기자

고창문화의전당, 초등 고학년생 대상 예술감상 교육 '놀토! 꿈토! 진행'

고창문화의전당이 매주 토요일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초등고학년 예술감상 교육을 진행한다.

고창문화의전당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꿈더락 토요일학교 예술감상 운영사업'에 선정돼 지역 예술단체 국악예술단 고창과 컨소시엄을 맺었다.

'놀토(노는 토요일)! 꿈토(꿈꾸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고창지역 초등고학년(초교 4~6학년) 대상으로 국악실내악, 갈라콘서트, 동화능민형명 등 다양한 주제와 공연 작품과 연계한 예술감상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되고, 10월에 3기 수업이 끝날 예정이다.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은 (1기)국악관현악, 실내악, (2기)동화능민형명과 고창판소리, (3기) 갈라콘서트 알아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3주간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에는 공연관람을 계획하고 있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김경민 주강사는 "유년 시절에 본 감동적인 예술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며 "참가 학생들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절름발이 소년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15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오페라 '장난꾸러기 아말의 행복 선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이 기획제작한 오페라 극 공연이 오는 15일~17일 3일간 무료로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난꾸러기 아말의 행복의 선물'은 오페라 극으로 한

적한 시골 마을에서 말쑥꾸러기이지만 티없이 순수한 절름발이 소년 아말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특히, 16일 17일은 14시에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전시 초청 공연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재정 관장은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아 기획한 공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며 "완주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16일 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 송출이 이뤄진다.

/정은성 기자

'얼씨구나! 흥~이로구나!'

전북문화관광재단 '우리가락우리마당' 9월 25일까지 도청 야외공연장서 12회 · 순창 등 8개 군 지역순회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북문화마을과 전주해금연주단이 선정돼 참작연회, 마당극,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북문화마을은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가락 신명세상'이라는 주제로 7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총 12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전주해금연주단은 오는 15일 장수 한누리 소공원을 시작으로 순창 진안 등 8개 군에서 '얼씨구나! 흥~이로구나!' 제목으로 운영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은 도내 신인부터 명인까지 역량을 갖춘 예술인에게는 무대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전



통 우리 가락을 경험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재단 문예진흥팀(063-230-744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무료 운영

18일까지 수강생 모집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7월 21일부터 총 8주간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전라북도의 인문 자산 및 유교문화의 정수를 알아보고 공유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7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대학교 한지산립관 201호에서 열리

는 이번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인문자산을 활용한 체험 및 답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18일까지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 및 문의는 전주대학교 HK+연구단 홈페이지(www.jbct.or.kr/hk/) 혹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